

# 공공미술에서의 환경조형물에 관한 연구

## Public Arts에서 Environment Art에 관한 연구

손문호, 김종기, 김성현

동서대학교 디지털 디자인 대학원

동서대학교 디지털 디자인 학부

동서대학교 디지털 디자인 학부

Moon-Ho Son, Chong-Ki Kim, Sung-hyun kim

Graduate School of Digital Design Dongseo UNIV

Dept. Digital Design Dongseo UNIV

Dept. Digital Design Dongseo UNIV

• Key words: Public Arts, Environment Art

###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도시의 환경이미지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재정립하고 개성화하는 한가지 접근 방안으로서 지역 특성화를 위한 디자인의 도입과 그에 따른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환경디자인이 기존의 상황을 전혀 새롭게 창의적인 고부가가치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의 확산은 지역특성화에서 디자인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고 있다. 문화란 오늘날 일반 대중의 생활방식 즉 삶이 되었다. 삶의 가치는 '대중문화상품'에 대변되고, 이런 상품은 문화가치의 기준으로 선택되어지며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지배하게 되었다. 인간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메카니즘을 알아내고 발전시키는 것이 환경디자인이다. 문화와 디자인의 관계가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관계 속에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문화와 경제, 그리고 사회가 분리된 영역이 아니다. 즉 본 연구는 삭막한 현대사회의 도시공간에 있어서 쾌적한 환경으로서의 질적 향상을 가져다줄 수 있는 환경조형물의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그 위상을 정립하고 환경조형물과 건축과의 관계성과 환경조형물의 독립성을 연구함으로써 환경조형물이 갖는 조형적 역할과 자연과 인간에게 친화적인 조형성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 1-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기존의 환경조형물, 건축, 도시공간에 관한 현장조사 및 문헌, 논문 등으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갖추어 환경조형물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현대 도시공간에 있어서 환경조형물의 의미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환경조형물의 역사적 연구를 통하여 도시환경의 구성요소로서의 환경조형물을 살펴보고 도시공간에 있어서의 건축과 환경조형물의 관계를 정의하고, 환경조형물의 독립성 및 환경조형물이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디자이너와 조경전문가 및 건축가의 역할과 관계에 관해서도 분석 및 검토하여 도시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환경조형물의 지향목표를 제시하였다.

### 2. 본론

#### 2-1. 환경조형물의 역사

조각은 예로부터 본질적으로 대중을 위한 예술이며 환경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환경조형물이 최초로 나타난 것은 로마시대로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역사적 광장에 기념조각을 세웠으며 그들을 업적을 설화적 부조로 새겨 기념했다. 트리아누스의 기념주는 그 규모면에서나

실제 새겨져 있는 다키아 전쟁의 역사로 볼 때 공간처리를 리얼리스트적으로 활용한 대표적 예가 될 것이며 로마세력의 절정기 기념물이며 환경조형물로 간주된다. 그러나 본격적인 환경조형물의 등장은 르네상스이후 시민계급이 발달로 시민을 위한 공공장소에 출현하게 되는데 이로서 시민들을 위한 문예를 보호하고 예술사업이 시작된다. 또한 조각의 독립을 가능케한 도시계획의 발달은 미켈란젤로의 '다윗'은 원래 높은 대성당의 부벽위에 놓이도록 계획되었는데 시 원로들에 의해 피렌체 공화국 시민의 애국적 상징으로 팔랏초 벅치오 건물 앞에 놓이도록 변경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작품의 성격과 조경의식과 교육적 기능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다.

오늘의 우리나라 환경조형물의 현황은 그 시기가 짧고 전통과의 단절 및 기능주의 건축과 환경조형물이 가지는 일반인들에 의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하는바 어쨌든,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기능주의 건축과 환경조형물은 그 기능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아름다운 것만이 기능적이다.」 「기능 그 자체가 미이다」는 말이 시사해 주는 것처럼, 이제는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것인가가 중요하며 이것은 환경조각으로서의 당연한 것이며 그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2. 환경조형물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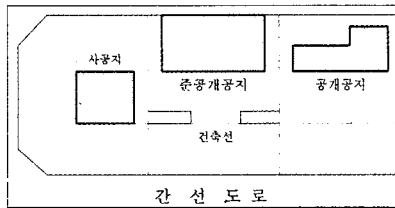
환경조형물은 우선 조형물이 설치되면서 환경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 작품이 놓여짐으로 환경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며 얼마만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지가 관점이 된다. 그래서 환경미술은 작가뿐만 아니라 건축가, 조경전문가, 도시환경전문가, 행정가, 기업주 그리고 대중 모두가 참여하는 범시민적인데 특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사적인 장소가 아닌 공공의 장소에 설치된다는 것은 이미 그 소유나 가치가 작가로부터 떠나 무엇보다도 대중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공공성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특정한 양식이나 작품성을 강요할 수는 없다.

이는 주제나 형태, 재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작품의 크기, 배경, 대좌, 조명등에 세심한 논의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작품상의 조형요소와 조형원리가 먼저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다.

환경조형물은 사전적 의미에서 볼 때 개인이나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도시의 조형공간 구성이란 목적으로 세워지고 대중들이 그것을 감상함으로써 예술적 체험하여 정서적 안정과 함께 도시미관을 개선하려는 목적 아래 세워진다. 현대에 이르러 조각은 건축과 함께 인공적 환경에서 커다란 부분을 점유하게 되었고, 인간의 정신을 순화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렇게 조각이 도시환경의 필수적인 구성물로 등장하는 이유는 그 자체의 미적 과정

뿐 아니라 어떤 장소에 대한 특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현대조형물이 박물관이나 화랑의 닫힌 공간을 떠나서 공공장소에서 대중과 같이 하고 자연이 사라져 가는 도시공간에서 새로운 자연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림1> 대지내 외부공간의 공공개방 정도

그리고 회관, 광장, 경기장, 대학, 공항, 극장, 아파트 등 각각의 특성에 어울리는 조형물 작품들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환경은 과거의 관리개념에 의해서 형성된 것인 만큼 현재의 환경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오늘날의 환경조형물은 바람직한 미래를 예측하여 현대문명의 참다운 발전과 생활 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그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3. 도시공간에 있어서 환경조형물의 의미

공간이라는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두 점 사이의 간격이나 거리를 의미한다. 서양에서의 공간은 전통적으로 비어 있음, 또한 비 존재라는 의미로서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동양적인 사상으로서 공간은 비어있거나 공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개념이다. 즉 에너지와 방향, 그리고 속도로 가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성되고 소멸되어가는 운동과 에너지의 끊임없는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공간 개념은 '중간체적인 연속체'로서의 분포로 가득찬 장이거나 혹은 '정신적 에너지', 또는 '존재에 대한 정신적 근원으로서의 기로 충만한 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공간에 하나의 물체가 존재할 때, 그 물체는 그 자체로서만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물체에 의한 영향권을 형성하여 실존하는 것이다.

결국, 공간이라는 것은 인간개체와 주위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인지현상의 구체화된 표현인 것이며, 절대적 존재이기보다는 상대적 실존으로 실존의 주체인 인간의 장은 일정에 가까운 것이지만, 역시 심리상태에 따르는 변화에 의존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지각할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도시공간은 도시민에게 창조적이고 쾌적한 환경의 제공과 환경의 질을 높인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능률·효율 분위기의 산업 사회 형성을 전제로 하는 도시 정비에서 떠나 도시공간 자체에 새로운 인간적,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며 즐겁고 풍요로운 도시 공간을 조성해야 함을 절감케 한다. 또한 무명무취의 표면으로 둘러 쌓인 획일적인 공간을 특색있는 장소로 환원하여 그 곳이 지니는 특성으로써 사람들을 매료하는 환경의 질적 향상을 꾀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지역주민이 소속감이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나라와 지방에 따라 공간, 자연문화 조건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필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의 본질적인 생활 양식에 걸 맞는 도시 공간 조성, 지역 사람들의 기분을 북돋아 주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야 비로소 진정한 도시공간에서의 생활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 2-4. 환경조형물 작품과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은 내부공간의 기능적 구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환경조형물을 포함하는 조경은 건축물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로 열려진 외부공간의 미적구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건축과 조경 즉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조화는 바람직한 건축환경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로서 어느 한쪽이라도 편중될 수 없는 상호보완적 함수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적절한 조화를 삭막해져만 가는 도시공간에 일종의 활력소적인 시각환경을 창출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환경조형물은 건축물의 용도, 층수, 거리, 설치 장소, 높이, 비례, 조경관계 등과 같은 건축물 및 주위환경과의 구성관계 요소들을 고려하여 제작·설치되어야 한다.

이에 환경조형물 작품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매개체로써 그리고 도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써의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요 요소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건축 규모 설정과 배치에 의하여 필요한 공지면적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아름다운 도시환경 창출을 위한 건축주의 환경조형물 작품 설치에 대한 인식도 수반되어야 한다.

## 3. 결론

이와 같이 환경이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근본적인 요인이므로 환경은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측면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조형적 환경은 예술적인 조성을 꾀함으로써 현대인의 무의미한 생활공간과 황폐해진 정신세계에 풍요로움과 정신순화를 가져다 준다.

이렇듯 환경조형물은 그 성격상 순수조각의 변형일수도 있으면서 그 자신의 위치와 논리를 지닌다. 그러므로, 순수조각이 빛과 공간상징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환경조형물은 만인 공유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과제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도시공간은 대다수인이 모여 살며 중요한 생활의 터전이므로 이러한 환경조형물은 작품의 다양성을 위해 조각가, 조경사들이 처음부터 같이 참여하여 마스터 플랜을 짜는 풍토성과 많은 환경조각가들이 단체를 결성하고 공동작업하는 종합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옛 전통성과 환경적 요소를 찾아내어 우리의 심미성, 도덕성 그리고 기능성을 고루 갖춘 문화전통에 의한 작품의 창작이 선 보여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조각은 도시공간의 구성요소인 생활의 다각적인 공적공간이 대중을 위한 자연화와 인공화로 알맞게 조화시킨 기능성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만유공통 언어로서 시대성과 양식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조각이어야 하겠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환경조각이 갖는 공간에 대한 바램은 추상적이고 예술적인 패턴으로 범주화한 기능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까지 충족시키는 직접적인 필요에 의해서 공적공간의 개념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간개념이라 함은 건축의 개념과 더불어 모든 인간을 위한 공적공간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환경조각의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최병상, 환경조각 서울 : 미술 공론사, 1900
- 김정동(역), 건축의 외부공간 서울 : 기문당, 1987